

쌀쌀한 날씨 ... 유통가는 벌써 '한겨울'

매장마다 겨울옷 갈아 입고 방한용품 판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여성복 브랜드 매출 12% 늘어

광주신세계 23일까지 패션·화장품 판매 '멘즈유크'

최근 날씨 쌀쌀해지면서 겨울 옷과 방한 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가을 정기세일이 진행 중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의류와 신발 매장에서는 겨울 패딩, 방한코트, 다운점퍼, 앵글부츠 등 겨울상품 상품 비중을 약 70~80% 이상 채우며 겨울맞이 준비에 나섰다.

가장 잘 팔리게 겨울 옷으로 갈아입은 곳은 여성복 매장이다. 마네킨과 행거 등 매장 전면을 겨울을 한껏 강조한 패딩, 코트 등의 상품으로 채워 고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입점한 '리본' 매장의 윤금자 사매니저는 "겨울 상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 올해는 지난 달 말 가을 정기세일 시작에 맞춰 겨울 의류를 선(先) 입고 시켰으며 현재는 매장 상품의 70% 이상을 겨울 옷으로 채웠다"고 전했다.

이런 변화는 이 지역 백화점 남성복 매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캐시미어, 모직 코트를 비롯해 패딩 소재의 점퍼 출시를 서두르고 있고, 셔츠 매장에서도 기모 셔츠 등 겨울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겨울상품 출시가 빨라지면서 관련 상품 매출도 탄력을 받고 있다.

본격적으로 겨울상품 물량이 늘기 시작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매출을 조사해본 결과 겨울 코트, 패딩 점퍼 등 여성복 겨울 주력 아이템은 브랜드 별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 가까이 신장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낮과 밤의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아직 가을 날씨가 한창이지만 백화점 매장은 벌써 겨울

옷으로 갈아입었다"며 "가을 정기세일 진행과 동시에 겨울 신상품 물량 확보에 신경 쓰고 있으며, 패딩 기획전 등 관련 행사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겨울 옷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점행사장에서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시니어 5·7·9만원 균일가' 행사를 진행해 재킷, 블라우스, 점퍼와 다양한 겨울맞이 방한 의류를 5/7/9만원 가격에 선보이며, 국제모피에서는 최대 70%까지 할인하여 100~200만원대로 만나 볼 수 있다. 또 9층 점 행사장에서는 혼수 시즌을 맞아 혼수 박람회도 개최한다.

신세계백화점도 발빠르게 겨울 상품을 내놓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13일~23일 가을·겨울 시즌 남성들의 클래식과 유니크를 만나

드는 '비즈니스 스타일, 캐주얼 스타일, 아웃도어 스타일' 테마를 반영한 패션, 액세서리,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멘즈유크'(MEN'S WEEK)를 진행한다. 또 오늘 13일(목)부터 16일(일)까지 1층 시즌 이벤트홀에서는 '멘즈 라이프스타일 페어'를 진행한다. 마크브릭, 레노마, 지이코, 빈, 킨by킨록앤더슨, 캘러스캐주얼 등 10여개의 정장브랜드가 참여해 남성에게 인기가 높은 슈트부터 캐주얼 룩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겨울 옷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 최근 '아티베이' 프리미엄 패딩을 50% 할인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불황 속 고가 명품시계 '불티'

결혼 예물 줄이고 명품 구매 젊은이 늘어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고가의 명품 시계가 잘 팔리고 있다. 결혼 예물을 줄이는 대신, 명품시계를 구입하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따르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고객의 예물 시계 구매 패턴을 금액대별로 분석해본 결과 500만원 이상의 고가 시계 구매비중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00만원 미만의 중·저가 시계 구입 비중은 6% 감소했다.

이처럼 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명품이 더욱 잘 팔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소비자들이 다른 품목의 지출은 줄이면서 수십만원대의 시계를 사는 '작은 사치'가 유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수 예물을 구매 할 때 고가를 지급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고가 명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다.

오는 11월에 결혼을 앞둔 김주하(여·26)씨는 "혼수를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예단이나 혼수품은 최소화 하고 평소 각자 갖고 싶었던 시계와 반지만 준비하기로 합의했다"며 "한 번뿐인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 고급 명품시계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2014년 1층에 브라이틀링, 태그호이어, 보메르시 등에 수입 명품 시계관을 오픈 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요즘 신혼부부들은 예전처럼 구색을 갖추기 위한 혼수보다 실제 자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품목만 구입하려는 실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꼭 필요한 상품은 품질을 따지는 가치 지향적인 성향을 보인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고가 수입 명품 시계 박람회와 같은 대형 이벤트를 지난해 보다 더욱 많이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신세계 '코리아세일 페스타' 매출 개선

국내 최대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 페스타'가 초반 매출 대비 중반 매출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는 12일 "지난 9일~11일 3일간의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7% 신장했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코스메틱 초반, 생활·식품의 특가 할인상품으로 인한 수요가 발생된 반면 지속된 비와 함께 늦더위로 패션 수요 감소가 있었지만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어 따라 간절기 의류를 찾는 고객들이 늘면서 패션장사가 신장세로 돌아 섰다"고 설명했다.

장르별로 살펴 보면 여성캐릭터(22%), 영계주얼(15%), 남성 셔츠(16%), 남성정장(16%)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코리아세일 페스타 전통시장 64% 매출 늘어

국내 최대 관광·쇼핑 축제인 코리아세일 페스타에 참여한 전통시장 10곳 중 6곳에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 50개 시장 상인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4.4%가 행사가 시작된 지난 29일부터 11월동안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이들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18.5%였다.

전통시장 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17%가 "이번 세일기간 전통시장에" 매우 만족했다", 53%가 "만족했다"고 평가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31.1%)을 가장 많이 구입했고, 고객 평균 구매액은 4만7천원 수준이었다.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현재 400여개 전통시장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중기청은 19일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에서 코리아세일 페스타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세계·화장지·삼푸 등 천연재료생활용품 잘 나가

가습기 살균제·치약 영향

광주 이마트 매출 18% ↑

최근 가습기살균제에서 치약에 이르기까지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되면서 화학(chemical)과 공포증(phobia)의 합성어인 '케미포비아'(화학포비아)가 이슈가 되면서 천연재료생활용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12일 광주지역이마트에 따르면 치약환불이 시작된 지난 9월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천연재료생활용품 매출은 전년비 17.6% 신장했다.

세부적으로 천연세제 25.3%, 천연화장지 17.4%, 천연삼푸 10.1% 신장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천연

제품 들을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고객들은 베이비제품들에 대한 가격보다는 성분표시 및 원산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회적분위기에 이마트에서는 '나를 위한 천연제품'을 주제로 천연재료들을 활용한 각종생활용품들을 만드는 문화센터 강좌도 열리고 있다.

이마트의 '나를 위한 천연제품' 강좌는 11월2일부터 매주 여드름·트러블 방지 비누, 천연 치약, 탈모예방 삼푸, 아로마향초 만들기란 주제로 진행되며 개인 선호에 따라 향이나 재료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으로 수강신청자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또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강좌 이외의



이마트 광주 상무점을 찾은 소비자가 천연세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마트 제공〉

천연재료로 생활용품 제조방법들을 함께 공유하며 정보를 넓혀 가고 있다.

이마트 최준화 마케팅 팀장은 "일상적인 생활용품 구매시 천연재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천연재료를 활용한 생활용품들의 인기와 판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향동 전통음식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송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